

# 學校圖書館 研究活動은

## 어떻게 展開할 것인가

金 京 一

### 一. 學校圖書館 研究活動의 意義

새로운 教育의 眞諦는 眞은 教育이 教師中心, 教科書中心의 教育이 였다는 點에 對하여 學生自身이 主體的인 自發的인 學習에 重點을 둔 教育이라고 함은 다시 言及할 必要가 없다. 이 自發的인 學習에는 學生들의 自主的인 經驗이 重要視되어 져야 함은 勿論이려니와 그의 經驗의 場所가 어떠한 곳인가, 또는 그 經驗의 內容이 어떻게 整理되어 져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즉 主體的인 學習이 단지 主觀的인 것 만이 아니고 客觀的인 으로도 價値가 있는 學習이 되어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學生들의 學習活動과 客觀的인 價値가 있는 學習內容 혹은 學習資料와의 關連이 어느 程度 有機的인 으로 맺어 져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學習活動 으로 하여금 價値있는 學習資料들을 使用 하여 充實한 學習의 過程이 持續되어 져 있는가 없는가 에 따라서 새로운 教育의 根本意義를 決定할 수 있다고 하여도 過言 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教育에 있어 教育課程을 展開하는데 直接的인 으로 奉仕하는 學校圖書館의 存在意義도 實은 이 點에 核心이 있다고 하겠다. 學生들의 主體的인 學習活動이 學校圖書館에 있는

圖書館資料들을 利用하여 어느 程度 充實 해 졌는가 즉 學校圖書館이 學生들의 學習活動에 如何히 有機的인 關連을 가지고 利用되어 지는가 하는 點들의 究明은 學校圖書館의 本質的인 意義와 重要性을 考察하는데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學校圖書館研究의 出發도 이 點의 究明 에서 始作됨이 研究의 正道가 아닐가 한다. 學校圖書館의 研究는 곳 學校圖書館의 發展을 뜻하며 나아가서는 育成計劃을 劃策하는데도 重要한 要素가 되는 것이 다.

### 二. 學校圖書館 研究活動의 考察

學校圖書館의 活動을 どり켜 보기에 앞서 研究活動以前의 學校圖書館들은 거의 公共, 大學圖書館等의 指導를 받아 그의 模倣에서 設置되었던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新設學校圖書館의 增加와 全國의 圖書館擔當教師들을 對象으로 延世大 學校와 피바의 使節團에서 實施한 司書教師 講習의 受講과 더불어 研究意慾을 鼓吹 시킨데서 學校圖書館은 獨自的인 研究分野가 있다고 함을 學校圖書館擔當자들은 自覺케 되었다. 이 獨自的인 研究의 性格을 가진 學校圖書館研究活動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의 觀點에서 論할 수 있으리라 고 본다. 첫째는 文教行政當局에 依한 活動이 고 둘째로는 地域別學校圖書館協議會에

依한 活動이라고 할수 있다. 前者에 依한 活動은 文教部指定研究學校로 馬山女子高等學校가 1956年 11月 17日에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主題로서 研究發表會가 있었음을 想起할 수 있다. 이 研究發表는 1954年 5月 17日 文教部로부터 指定을 받아 3年間の 研究過程을 거쳐 全國의 教育關係者 500餘名이 參席하여 韓國 最初의 全國的인 研究活動으로서 그 意義는 자못 컸다고 하겠거니와 特히 當時 胎動期였던 韓國의 學校圖書館發展에 劃期的인 契機를 形成하였고 또한 이 研究活動을 始發點으로 하여 文教部는 學校圖書館研究活動의 促進을 위하여 불을 點火시켰든 것이다. 뒤따라서 1958년에는 慶南道指定으로서 晉州高等學校에 4次에 걸쳐 다음과 같은 研究活動이 있었다.

第1次研究發表 1958年 11月 14日

- 主題: 1. 도서관시설 및 정비에 관하여.  
2. 도서관이용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第2次研究發表 1959年 6月 26日

- 主題: 1. 시청각교육과 도서관.  
2. 도서관이용지도와 독서경향.

第3次研究發表 1959年 11月 5日

- 主題: 1.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은 현대교육의 중요과제.  
2. 학교도서관시설자료 및 관리의 실제에 관하여.  
3. 학습활동과 직결된 도서관.  
4. 진고학생들의 독서경향.

第4次研究發表 1961年 11月 11日

- 主題: 1. 사서교사의 활동영역과 실제.  
2. 도서수리제본에 대하여.

3. 도서관 시설.
4. 비도서자료 정비문제.
5. 학교도서관 조직운영문제

그리고 慶南道指定으로서 固城農業高等學校는 1962年 11月 6日 “農村學校圖書館의 運營”의 主題로서 研究發表가 있었다. 이 以外에도 1958年 6月 10日 慶南 의령中學校의 “열람실 없는 학교도서관”이라는 主題로 發表會가 있었고 同年 9月에는 慶南高等學校에서 “開架制 學校圖書館”의 主題로 研究發表會를 가져 學校圖書館의 教育的機能에서 開架制가 絕對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以上과 같이 行政當局의 指定 또는 後援에 依한 研究活動은 沈滯狀態에 있던 全國의 學校圖書館運動에 크게 功獻하였을 뿐만 아니라 學校圖書館界의 進路를 開拓하였다고 할수 있다. 다음의 學校圖書館協議會의 研究活動으로서 는 釜山, 晉州의 兩協議會의 研究活動이 있었을 뿐 서울, 仁川 등의 協議會에서는 特記 할만한 研究活動은 없었다. 釜山市 學校圖書館協議會의 活動狀況을 보면

1. 학교도서관용(중, 고) 우량도서 선정 연구.
2. 학교도서관의 Staff Manual에 관한 연구.
3. 학교도서관용 “버어티컬 파일”용 주제명 표목표연구.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校圖書館研究活動이 1956년부터 始作되어 主로 慶南地區에서만 活動이 活潑하였음을 알수가 있고 全國的인 研究活動은 始作에서 끝을 맺은 感을 느끼게 한다.

學校圖書館이 漸次的으로 發展을 거듭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全國化하는 데는 許多한 難問題들이 많다. 于先 基本

問題란 몇가지 들면 司書教師의 法的保障 問題를 비롯하여 圖書館運營을 위한 財政 問題等의 未解決은 全國의인 學校圖書館 運動의 障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實情에서 學校圖書館의 研究方向을 究明하여 불에 學校圖書館研究活動은 어느 學校에만 局限되거나 或은 어느 地域의 特殊性에 適應되는 研究活動보다는 먼저 研究活動自體가 系統性을 維持하여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生覺한다. 系統的인 研究方法으로서 設置의 研究에서 組織運營의 研究, 利用指導의 研究, 教師들의 教授法 改善(특히 教授技術과 方法에 있어서 圖書館資料를 必要로 하는 方向으로) 등의 研究過程이 隨伴되어 研究活動이 推進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論點에서 從來의 研究活動은 系統性이 不足하였다고 함을 指摘할 수가 있다. 이런 結果의 起因은 文教行政當局뿐만이 아니라 一線 司書教師들로 하여금 研究活動에 關한 目標와 方針이 明確하게 把握 못함에서 生起한 結果라고 하겠다.

革命政府의 文教政策上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從前보다 學校圖書館의 設置 運營을 強化시키려는 意圖에서 1962年度의 文教獎學方針에도 學校圖書館育成에 關하여 보다 具體化 되어져 있으며 또한 1955년에 公布한 施設基準令의 學校圖書室關係條項의 矛盾을 是正하기 위하여 昨年에 草案한 各級學校設置基準의 學校圖書館의 關係條項은 發展의인 基準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이와같은 行政的인 發展策을 背景으로 1963年을 접어들면서는 例年에 比해 研究活動이 全國化되어 가는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이의 實例로서 文教部의 指定研

究學校로서 仁川 津島로 高校圖書館이 研究中에 있고, 서울 特別市教育局의 指定研究學校로서 鞍山國民學校圖書館이 研究中에 있다. 또 京畿道의 指定研究學校로서 山谷國民學校가 研究中에 있으며, 大邱市의 指定으로서는 大邱女子中學校, 全北 群山은 群山國民學校 등이 現在 研究發表를 앞두고 研究進行中임을 들 수가 있다. 以外에도 筆者가 入手치 못한 다른 地域에서의 研究活動이 있음을 豫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活動들이 研究를 위한 研究에 끝쳐서는 決코 안될 것이며 만드어 이 研究活動을 契機로 하여 全國的인 學校圖書館의 育成과 發展을 위한 基盤을 堅固히 하는 研究活動이 되기를 希願하는 바이다.

### 三. 學校圖書館研究의 目標와 方針

學校圖書館研究에 있어서 體系의인 研究와 全國的인 實績에서 適應되어 질 수 있는 研究活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하는 點을 앞에서 強調한 바 있지만 今年度에 文教部 또는 道市等의 關係當局으로부터 研究指定을 받은 學校圖書館으로서 그의 研究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關하여 正確한 目標와 方針들이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唐慌하는 學校도 있음을 對할 때 關係當局에서는 研究指定을 할 때에는 具體인 方案을 樹立하여 指定研究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一時的인 散策과 같이 研究를 위한 研究行事로서 幕을 내리야 하는 結果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全國的인 研究活動을 策劃하려거든 보다 科學的인 研究活動의 目標와 方針이

講究되어야만 할 것이다.

### 1. 學校圖書館研究의 基本態度로서

- ㄱ. 學校教育에 寄與하고 振興하는 目標下에 學校圖書館의 研究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方向을 正確히 把握할 것.
- ㄴ. 特定된 學校만을 對象으로 할 것이 아니라 全國의 學校에 共通性있는 研究를 할 것.
- ㄷ. 一時的인 研究가 아니고 永續的으로 參考가 되는 研究를 할 것.
- ㄹ. 過重한 勞力, 時間, 經費等を 드리지 않고 平素의 堅實한 研究의 集積에 依하여 成果를 거드도록 할 것.
- ㅁ. 研究는 豫定期間을 定하여 計劃的, 組織的, 能率的으로 研究할 것.
- ㅂ. 研究의 結果는 그때 그때 正確한 評價를 加하여 評價의 結果를 土臺로 漸進的인 研究의 길을 開拓한 다.
- ㅅ. 研究發表自體가 研究의 目的만이 아니므로 研究의 結果 參考價値가 있을 뿐만 아니라 學校圖書館設置 運營等의 改善 發展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은 可及의 全國化 시키는데 努力한다.

### 2. 學校圖書館研究의 目標

學校圖書館의 研究目標로서는 먼저 學校圖書館은 어떠한 役割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의 意義를 明白히 한 後에 研究目標가 設定되어야 한다. 目標에 있어서 特히 重點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點을 몇 가지 들면

- ㄱ. 學校圖書館은 學校全體에 奉仕한다.

學校圖書館은 學校와 分離된 施設이 아니고 學校內에 存在하는 學校教育의 中心的인 施設로서 學校全體에 奉仕하지 않으면 안된다.

- ㄴ. 學校教科의 全教科에 奉仕  
教科過程展開에 直結하여 學生들의 學習活動에 도움이 되도록 全教科에 奉仕하지 않으면 안된다.
- ㄷ. 圖書館利用指導 및 生活指導  
學生들이 圖書館을 効果있게 利用할 수 있도록 利用指導 할 것과, 讀書指導를 通하여 讀書의 態度, 人間形成 및 社會的 生活態度를 指導한다.

### 3. 研究의 方案

- ㄱ. 自主的教育態勢의 確立이 必要하다.

學校圖書館自體보다도 먼저 學校全體로 하여금 自主的인 學習形態로 改編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圖書館을 必要로 하는 學校의 教育態勢가 이루어 질수가 있다.

- ㄴ. 學校圖書館利用의 計劃化  
漠然하게 學校圖書館이 利用되어짐을 期待할 것이 아니라 利用時間制를 制定하여 教育計劃안에 圖書館을 包含시켜야 한다.
- ㄷ. 學校圖書館資料收集의 選擇  
學校圖書館에 있는 資料들이 利用價値가 없다고 하면 마치 敝없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은 適正한 資料들을 選擇收集하는 데서 始作한다.
- ㄹ. 學校圖書館資料의 組織化  
選擇收集된 資料들이 迅速하게 利用될 수 있도록 萬全의 態勢를 갖추

기 위하여 科學的인 資料의 組織化가 必要하다.

ㄷ. 學校圖書館利用의 簡便化

資料利用의 手續이 復雜하여서는 圖書館利用이 멀어질 우려가 있다. 可能限한 最大限度로 簡便化되어야 한다.

ㄹ. 圖書館教育의 徹底

圖書 및 圖書館의 利用法을 指導하여 圖書館을 活用함으로 해서 學生들의 學習效果를 높일수 있도록 圖書館教育을 徹底히 한다.

ㅅ. 學校圖書館의 對外活動

學校圖書館活動을 館內에만 局限할 것이 아니라 各教室로 進出시켜 學校全體에 圖書館機能을 包含하도록 活動한다.

ㅇ. 學校圖書館의 公報活動

圖書館은 恒常 새로워 지며 動的인 學校全體에 周知시킬 必要가 있다. 學校放送, 簡報, 揭示等を 活用한다.

結 論

以上에서 學校圖書館研究活動을 위한 考察과 目標, 方策에 關하여 論하였다. 그러나 研究活動의 全體的인 面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때 部分的이며 非組織的인 研究活動을 하루 速히 組織化 할 必要性을 強調하고 싶다. 아직도 全國的인 研究活動의 實態조차 누구도 把握치 못하고 있는 實情임으로 文教行政當局이나 圖協等에서는 뒤늦은 研究活動을 보다 充實하게 發展시킬수 있는 對策을 時急히 樹立하기 위한 檢討研究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筆者 京畿高校 司書教師)

原 稿 募 集

本誌에 掲載할 會員 여러분의 原稿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                          |
|--------------------------------|--------------------------|
|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論文            | 의 것.                     |
|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 其他消息           | 5. 掲載分에 對하여는 所定의 稿料를 支拂함 |
| 3. 圖書館과 相關되는 隨筆(2百字 原稿紙 20枚內外) | (磨勘은 每月 末日限)             |
| 4. 其他 本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          | 「도협월보」編輯室 白              |